

보도일시	2022.2.11. 14시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직속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하준경
담당자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본부장 임승빈 교수/010-3209-0731, 정책과제 본부장 장석영/010-9222-5867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간사 김준일 교수/010-7242-15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직속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일자리, 역량, 공정채용 간담회 개최

### “정의로운 전환 위해 노동안전망, 국민역량, 공정채용 강화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와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일자리, 역량, 공정채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하준경 위원장, 이병훈 교수 (중앙대), 정홍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반가운 센터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승환 교수(인하대), 이다운 연구자(인하대 박사과정) 등 전문가들과 시민 등

□ 이 간담회에서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노동안전망 및 국민역량 강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청년 공정채용, 그리고 경력단절, 워킹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다.

□ 두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정의로운 전환의 기초인 노동안전망 강화’, ‘국민기본역량계좌제도 발전 및 주 45일제를 통한 학습시간 확보’, ‘메타버스 면접, 블록체인 이력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정채용 제도의 획기적 강화’ 등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 전문가 발제에서는 정홍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디지털역량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금지 등 공정한 노동계약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담은 노동안전망으로서의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등이 토론되었다.

- 반가운 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디지털 전환기에 원활한 산업전환을 이루고, 개개인이 창업과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개발(re-skilling)과 기존 직업에서의 역량고도화(up-skilling)가 중요함을 밝혔다. 관련하여 한국 성인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학습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기본역량계좌와 더불어 비민주적 조직문화개선 및 학습을 전제로 하는 주 4.5일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 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 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최근 유통업체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이 메타버스 면접 방식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구직자와 자유롭고 유연하게 상호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 면접을 도입했다”고 밝히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청년MZ세대 · 경력단절여성 · 신체 장애인 · 중장년층, 어르신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다운 연구자(인하대 박사과정)는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보호자의 돌봄이 최소화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0년 동안 경력단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 간담회 참여자들은, 메타정부 채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 내에 흩어져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국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신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메타정부 소확행 공약은 2자녀의 어머니이자 박사과정 학생인 40대 워킹맘이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두 위원회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통한 노동안전망의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한 국민기본역량계좌 제도의 발전, 주 4.5일제의 활성화를 통한 학습시간 확보와 평생학습사회 구축, 메타버스 채용시스템, 블록체인 이력서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정채용 제도의 획기적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끝)

##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 발표문

“노동안전망, 역량강화, 공정채용, 적극 지원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모두의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입니다.

기술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지원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려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노동안전망과 역량, 그리고 공정채용입니다. 이 세 측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의 기초인 노동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노동의 현장에서 낙오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노동계약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전환기일수록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든든한 안전망 위에서 대전환이라는 변화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남녀노소 누구나 대전환에 적응할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한 국민기본역량계좌 제도를 발전시키고, 주 4.5일제가 학습시간 보장에 활용되도록 지원해 평생학습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환은 역량의 개발과 고도화를 필요로 합니다. 창업이나 이직과정, 혹은 자신의 현재 직업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은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개발은 더 나은 보상과 개인의 성취로,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역량 관련 정책들은 이러한 대전환의 요구에 대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제도, 재교육, 직업훈련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들을 전환시대에 맞게 선진화하고 연계하여 국민기본역량계좌제도를 발전시키고 평생학습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본역량계좌제도와 더불어 학습을 위한 유연한 근무방식도 현실에 맞게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주 4.5일제가 활성화돼 학습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전환기에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해 공정채용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전환에 참여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채용이 필수적입니다. 공정한 채용제도는 현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건이자 새로운 직업의 탄생과 이직이 보편화되는 대전환 시기에 적극적 참여와 기회 확대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공정채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채용에 메타버스 면접, 블록체인 이력서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채용시스템 등 첨단 공정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채점·평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변조 등 채용비리 가능성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채용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회복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채용절차의 공정성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판 신분제습이나 음서제가 생겨날 수 없도록 채용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술대전환이라는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2.11.

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생활에 더 친숙한 세계최고의 메타정부를 만들어주세요!”

### 1. 개요

· 메타정부 소확행 공약은 2자녀의 어머니이자 박사과정 학생인 40대 워킹맘이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재명 정부의 메타정부 정신에 부합함.

### 2. 타정당 공약과의 비교

- 윤석열 캠프의 1분 공약은 대부분 이대남을 겨냥한 갈라치기 공약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음.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핸드폰으로 백신예약을 하는 세계 1위 우리나라 전자정부와 IT강국코리아를 폄하하고, 데이터 집적으로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조지오웰의 <1984>빅브러더를 연상케 하는 매우 위험한 공약임.

###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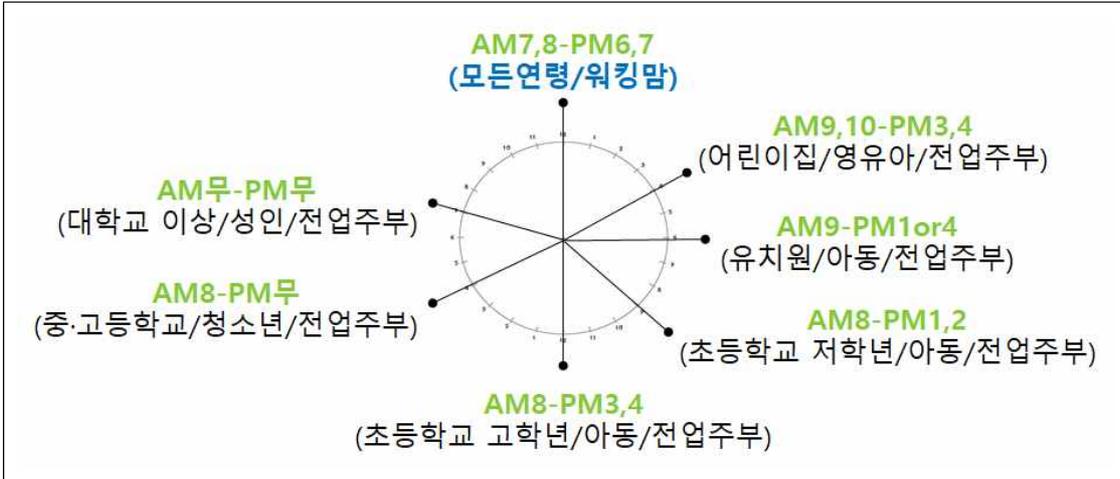
· 메타정부는 취업 · 교육 · 의료 · 복지 · 문화예술분야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진정한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공약임.

### 4. 공약 제안

- 국민 모두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취업활동을 하고, 청년MZ세대 · 경력단절여성 · 신체 장애인 · 중장년층의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채용시스템 구축** 및 **메타버스 내 신규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안함.
- 국내외 거주자, 이민자, 외국인 등이 외국어 및 특성화 · 전문화 기술교육을 자유롭게 학습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메타버스 글로벌 교육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진료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스마트 처방전 발급 등을 통해 스마트 의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메타버스 의료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초고령화 사회에 소외되는 노인이 없고, 노인층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쉽고 조작이 간편한 **메타버스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스마트한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창작공간 구축**을 제안함.
- 메타버스를 통해 여행 및 출장 일정 등을 시뮬레이션 하여 국민 모두가 스마트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관광서비스 분야의 개발**을 제안함.
- 지역주민 누구나 메타버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반사회 구축**을 제안함.

·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이 된 사례

<그림1. 엄마의 시간표>



- 워킹맘은 일을 하기 위해 육아를 대신해줄 수 있는 보육시설, 학원, 조부모, 등하원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야 됨.(필수조건)
- 육아만 전담한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보호자의 돌봄이 최소화되는 기간인 약 10년 동안 경력단절이 될 수 있음.(선택조건)
- 현재 국책기관과 각 자치단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도 육아를 병행하며 제한된 짧은 시간동안 일할 수 있는 양질에 일자리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메타정부를 통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 내에 흩어져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국가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신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블록체인 청년채용으로 채용비리 단 한건도 용납 하지 않는 ‘유능한 메타정부’ 꼭 실현하겠습니다!”

### 1. 개요

· 채용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블라인드 면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방식의 블라인드 면접과 메타버스를 접목 시킨 것이 바로 메타버스 채용(또는 아바타 면접)

### 2. 주요내용

- 메타버스 활용 공정채용

- ‘메타버스 블라인드 채용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0%가 대면 면접 등 ‘오프라인 채용 프로세스’ 보다 아바타 면접 등 ‘온라인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

○ **전통적인 문서중심 이력서의 제거, 블록체인 이력서의 활성화**

- 인사담당자는 구직자(또는 지원자)의 아바타만 보고 상대의 업무 역량, 개인 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개인의 소신과, 결정, 의지를 보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게 될 것

※ 최근 유통업체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에서 메타버스 면접 방식으로 인원을 채용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구직자와 자유롭게 상호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 면접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블록체인 기술로 각종 채용비리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이며, 직업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교육계에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문자 QR코드와 같이, QR코드 하나로 어떠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실물카드로 존재하지 않아 휴대성과 편의성은 극대화됨

### 3. 기대효과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평등한 메타버스 속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신체적 결함(외모, 개성, 장애)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가정 간 경제적인 격차는 메타버스 속에서 무의미할 것임
- 메타버스 채용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공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수단, 소수자·지역·종교 등 모든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사회 기본 플랫폼이 됨

### 4. 공약 제안

- 모든 공공기관, 공사공단, 유관기관에서 먼저 메타버스/블록체인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불공정 채용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 청년MZ세대 · 경력단절여성 · 신체 장애인 · 중장년층, 어르신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가칭)‘청년 공정채용보드’를 내외부 5대50으로 구성하여 공정관리 제도개선과 상시혁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단 1건의 채용비리는 물론 단 한건의 채용잡음에도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최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도록 채용단계부터 혁신 하겠습니다.



